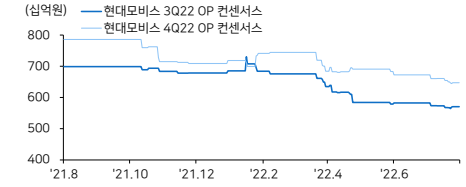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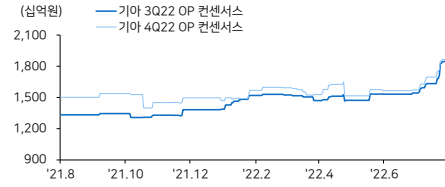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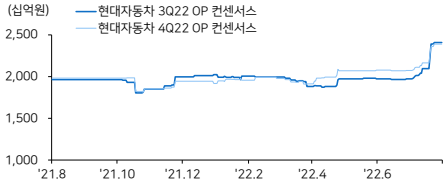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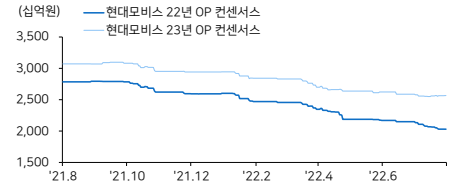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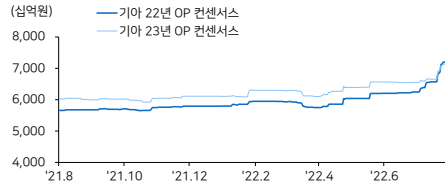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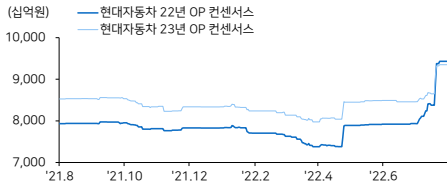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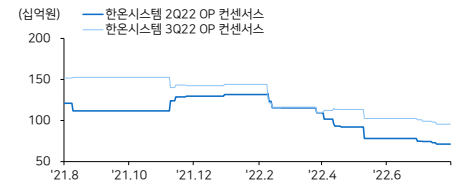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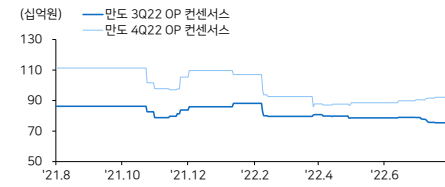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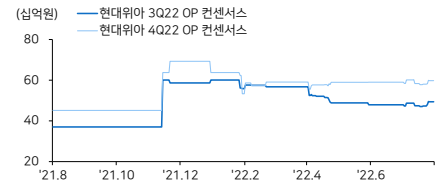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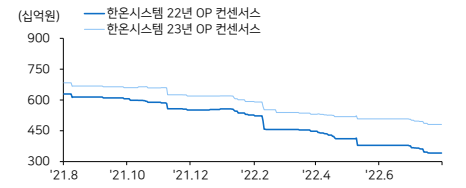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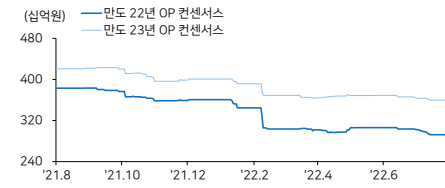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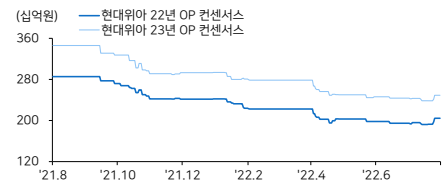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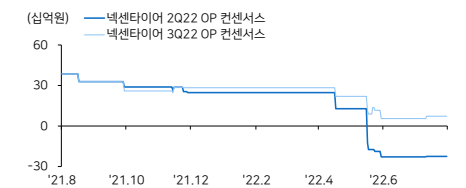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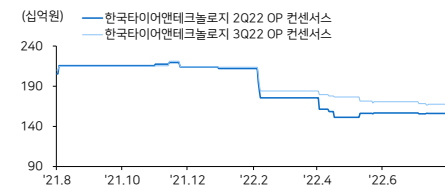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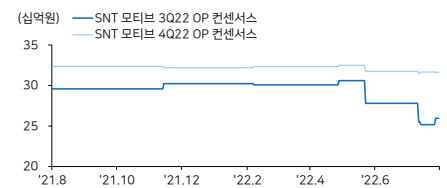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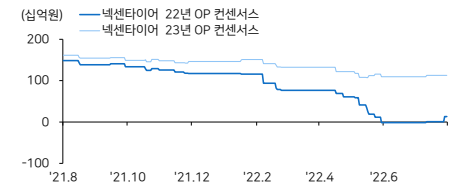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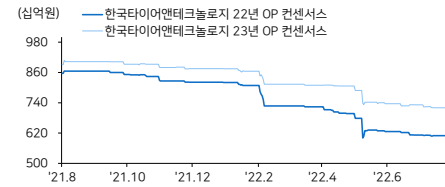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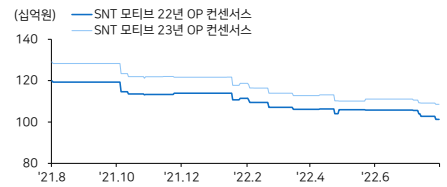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계입체인재' 기아 렌터카, 기아 중고차 사업 선행에 선다 (이데일리)

기아가 계열사인 '기아 렌터카'를 중고자동차 사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시장 공략에 나선. 기아와 현대차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시범운영할 예정. 기아와 현대차의 본격적인 중고차 판매는 내년 5월부터 가능. <https://bit.ly/3bht30D>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대 연다 (ZDNet Korea)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함. BEV의 초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어 보급 확산과 배터리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https://bit.ly/3B5GCoP>

VW expects restocking commodities will cost more as production rebounds (Automotive News Europe)

VW CFO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전 저렴하게 조달한 원자재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를 채우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 상반기 및 중 세금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미국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의 BEV는 모두 7,500\$ 지급 대상. <https://bit.ly/3bhmH0O>

Here's every electric vehicle that currently qualifies for the US federal tax credit (electrek)

미국 에너지부는 2010년 이후 구입한 BEV/PHEV에 최대 \$7,500 세금공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고정 인센티브가 아니며 개인 별 소득 및 총 세금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미국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의 BEV는 모두 7,500\$ 지급 대상. <https://bit.ly/30yFyKe>

중 자동차 수출 다시 급증세 (KOTRA)

물류난과 공급 차질로 4월 역성장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상하이자동차그룹, 체리, 동평, 창안, 지리 등 메이저 로컬 메이커들이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선봉장' 역할을 하는 중. <https://bit.ly/30Nu7ap>

중 규제 강화에 샤오미의 13조원 전기차 프로젝트 '재동' (조선비즈)

중국 당국의 전기차 사업 면허 미허가로 인해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림. 샤오미는 기존 사업인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제조에서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감소로 기록한 후 세 성장 분야 모색 중. <https://bit.ly/3bfBByX>

Toyota group company CFO casts doubt on automaker's output goal (Reuters)

토요타 CFO는 이번 실적발표에서 올해(2022.03~2023.03) 생산 목표 970만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토요타의 연간 생산 전망은 발표되지 않음. 2Q22 생산량은 생산계획 대비 90% 수준을 달성함. <https://reut.rs/3PLXWt3>

Volkswagen Global BEV Sales Increased in H1 2022 By 25% (InsideEVs)

폭스바겐은 1H22 YoY +2% 증가한 1,323억 유로 매출을 기록. 차량 인도는 YoY -22.2% 감소한 388만대. 2Q22 BEV 판매는 YoY +0.6% 증가한 62,500대, 1H22 총 BEV 판매는 YoY +24.8% 증가한 115,900대를 기록. <https://bit.ly/3bk10oQ>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